

시로 작곡하고 그림책 만들고...전남 '2030교실' 활기

2030수업 연구회 워크숍서 사례 공유 도교육청 "미래형 수업 공간 본격 조성"

전남교육 현장에서 '2030수업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변화를 주도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항도여중학교의 '사운드 퓨처 연구회'가 음악과 디지털 역량, 세계시민교육을 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멜로디를 만들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단순히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도구와 융합된 창작 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감수성,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울 수 있었다.

'화성 탐사'를 주제로 한 나주 매성고 '매성 에듀브릿지 연구회'의 협업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주도 활동과 디지털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영어, 수학, 과학, AI를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AI 기반 영어 회화를 구성하고 주제와 연계된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과학적 상상력을 확장해 나갔다.



나주 매성고등학교 '매성 에듀브릿지 연구회'가 협업 프로젝트로 2030교실 수업 공개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순천매산여고 '미래창조과학연구회'는 센서

를 활용한 지역 환경 측정과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학 수업을 진행했고, 융정중 '2030 AI 교실 연구회'는 생성형 AI를 활용

해 시 창작과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운영하며 창의성과 소통 역량을 기웠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2030교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5 중등 2030수업 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내 2030수업 연구회 소속 50팀과 수업 컨설턴트 등 322명이 참석했으며 수업 사례 발표, 수업리더교사 대상 컨설팅, 연구회 간 협의회 등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예당고 'AI 기반 토론과 보고서 작성' ▲나주금천중 '문학 분석·SNS 소통·생태 영상 제작' ▲남악고 '가치 탐구형 윤리 수업' ▲순천미래과학고 '기후변화 주제 미네르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교과와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2030수업 연구회가 중심이 돼 수업 혁신과 미래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자리였다"며 "교사들의 실천적 수업 나눔이 학교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형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유아 51실, 초등 43실, 중등 40실 등 총 134개의 2030교실을 선정하고 미래형 수업 공간 조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다이지

조선대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성공

자동차 플랫폼에 대학 개발 SW 이식 교내 도로서 실증...안정성·신뢰성 '입증'

조선대학교가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공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KAMO)에 조선대 퓨처모빌리티랩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를 이식해 실제 도심 환경과 유사한 교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실증 운행했다.

퓨처모빌리티랩은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SW를 활용해 센싱 인지 측위 경로계획 제어 차량 인터페이스에 이르는 풀스택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특히 돌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인지와 제어 모듈을 Vehicle-in-the-Loop(VIL)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전 검증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실증 운행은 지난 4·19일 진행됐으며 노선은 교내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미술대학 ▲국제관 ▲중앙도서관 ▲장미원 ▲의과대학을 순환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승하차 정류장은 필드하키장, 중앙도서관, 장미원 등 총 3개소가 운영됐다.

셔틀에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조선대학교가 최근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대학 도로에서 이뤄진 셔틀버스 자율주행 이후 탑승자들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는 모습.

(조선대학교 제공)

등 약 400명이 탑승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했다.

해당 기간 동안 셔틀은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마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체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대다수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했고 향후 셔틀 서비스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이용 의지를 드러냈다.

성우석 퓨처모빌리티랩 교수는 "이번 실증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시민이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실제 도심과 유사한 캠퍼스 환경을 활용

해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함께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 2023년 주추만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 미래모빌리티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연구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 결실로 미래차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RISE 체계에서도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지역산업과 연결해 산학협력 기반의 실질적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RISE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이지

광주여대 마음교육학과 '심리극' 특강 성료

맞춤형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박희석 마음상담센터 센터장 초청

광주여자대학교 마음교육학과는 "최근 '심리극과 마음챙김'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음교육학과 전문가 특강은 전공 연계 취업 트렌드 이해 및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창업 교육 지원을 통해 전공을 심화하고 현장을 연계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박희석 마음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을 초청, 심리극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마음교육학과는 전공 수업과 함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대 심리학, 교육학, 철학, 종교학, 통합예술치료학과 함께 과학적 기반의 명상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통합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제공, 학·석사과정은 운영 중이다. /김다이지

담양교육지원청, 청소년 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

흡연 예방 토크콘서트·캠페인 전개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월산초등학교 강당에서 흡연 예방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연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흡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담양교육지원청이 캠페인을 주최, 보건소가 토크 콘서트를 지원했다.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의 위험, 금연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졌으며

캠페인 참여 학생들에게는 '우리 함께 금연해요! 담배 out! 건강 in!'과 같은 흡연 예방 문구가 새겨진 간식꾸러미와 일회용 밴드가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됐다. 앞으로 친구들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간식 꾸러미도 맘에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애 담양교육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광주매일신문